

# 전문 음악교육을 위한 실용음악 정교사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조지훈<sup>1</sup>, 조태선<sup>2\*</sup>

<sup>1</sup>청운대학교 대학원,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For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A Study on the Need for Practical Music Teacher Certification

Ji-Hoon Jo<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Graduate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TV 오디션 프로그램과 K-POP 열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음악으로 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해 음악수업을 받았고, 이후 대학의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게 된다. 지원생들이 많아지면서 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경쟁률이 기형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음악을 시작하였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통해 음악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를 실용음악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실용음악 고등학교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해당 음악을 전공한 전문교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는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용음악 전공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은 클래식과 국악에 한정되어 있어 입학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입학할 하여도 교육대학원 교과목의 대부분이 클래식과 국악교육에 관련된 수업으로 구성되어 실용음악전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현재 상황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Many young people, who are most affected by TV audition programs and the K-pop craze, have begun to choose careers in music. They attended music classes through academies or took private lessons, and then went on to a college's practical-music department. As the number of applicants increased, competition for university practical-music programs increased abnormally. As a result, many students then started learning music at an early age through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cademies. Afterwards, as high schools related to practical music began to appear,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practical-music high school and technical schools increased. However, a big problem in practical-music high schools was difficulty in finding professional teachers who majored in music. This arose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someone with a practical-music major to acquire a full-time teaching certificate. There are many ways to obtain a teacher's license, but the only option for practical-music majors is to graduat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wever, sinc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s limited to classical and traditional music, admission itself is difficult. Even if someone is accepted by the school, most of the courses consist of classical music and traditional music education, which is very difficult for someone who majored in practical music. Therefore, in this thesis, we study the current situation in practical-music high schools, looking at why a regular Level 2 teaching certificate is needed and how to obtain one.

**Keywords** : Applied Music, High School, Teacher, Education, K-POP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April 5, 2021

Revised May 3,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 1. 서론

국내에서 대중음악이 10대, 20대 청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부터다. 당시 군사정권은 많은 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통제하였고, 많은 청년들은 음악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1977년 시작된 “MBC대학가요제”를 통해 음악을 즐기며 음악인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이후 생겨난 많은 가요제를 통하여 뛰어난 음악 인재가 발굴되었고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1980년대 밀리언셀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음악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최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전부터 유행되어왔던 발라드와 더불어 1992년 등장한 3인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대중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후 H.O.T, 젝스키스, 핑클, SES, GOD 등 많은 아이돌 뮤지션들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댄스음악, 아이돌 문화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들이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게 되면서 10대들의 관심은 한층 더 높아져 갔다.[1] 이렇게 형성됐던 아이돌 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국내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아이돌 가수들은 활동영역을 국내를 해외로까지 넓혀나가면서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해외의 음악 시장까지 장악하게 된다. 처음에는 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시장의 문을 두드려 가수 싸이와 그룹 BTS가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전 세계에는 K-POP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문화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K-POP이 다시 한번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2009년 7월 Mnet에서 방영한 “슈퍼스타K1”을 시작으로 파생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송가뿐만 아니라 음악 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작인 “슈퍼스타K1”의 경우에는 713,503명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이러한 수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K-POP이 대중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K-POP 아티스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었다. 그들은 가수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이 출현하는 방송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가수, 음악가로 정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실용음악 학원을

찾기 시작했고, 나아가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교에서 관련된 학과를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응하듯, 1989년 서울예술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실용음악과를 개설 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실용음악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다른 대학교에서도 실용음악과를 개설하게 된다.

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의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 입시 준비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되면서 대학교의 실용음악과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게 된다. 400:1, 500:1을 기록하는 대학교들도 등장하게 된다. 이에 실용음악과 입학에 준비하는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은 차별화된 입시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학원과 개인 레슨 외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 무렵 국내에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전문 고등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국내에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고등학교는 존재했지만, 소수의 학교가 있었고,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실용음악과의 경쟁률이 치솟자, 더 많은 시간과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었다.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실용음악 고등학교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했다. 바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정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다. 대부분이 클래식이나 국악은 전공한 교사들이었다. 이는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교사 임용에 필요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개선을 위해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현황과 해당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 조사하였고, 관련 전공자가 관련 고등학교의 정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 2. 연구배경

국내 대학교에서 1989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실용음악과가 생기기 이전 대중음악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국악이나 클래식과 같은 다른 음악의 학과를 진학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음악과의 개설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다. 서울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국내 대학에는 점차적으로 실용음악

악과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결과 유사 학과와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강원 2개, 경기 23개, 경남 1개, 경북 8개, 광주 1개, 대구 2개, 대전 3개, 부산 5개, 서울 23개, 세종 1개, 인천 1개, 전남 4개, 전북 7개, 충남 10개, 충북 2개로 총 93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평생교육시설인 전공학교와 학점은 은행제로 운영을 하는 학과를 포함하면 더욱더 많아진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프로 뮤지션들과 해외에서 공부한 교수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실용음악과 진학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은 늘어갔으며, 경쟁률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중 보컬 전공은 400:1, 500:1을 기록하는 대학교도 나왔으며, 60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교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학교로 전문대학교에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등이 있고 4년제 대학교에 호원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있다.

실용음악 고등학교는 점차 늘어나, 2020년 현재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22개, 중점학교 2개, 특성화고등학교 5개, 학력인정고등학교 2개, 대안학교 8개로 총 39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대표적인 학교로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에서는 아현산업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김천예술고등학교 등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로는 리라아트고등학교, 고교학력인정학교에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대안학교에는 안양실용음악학교 등이 있었다. 최근 충남 광천에 국내 최초로 한국 K-POP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실용음악 고등학교에 향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실용음악 고등학교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바로 실용음악을 전공한 정교사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실용음악 전공자가 사립 고등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정교사 2급 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실용음악 전공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는 다른 음악의 전공자 중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고, 실용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은 강사로 채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 3. 본론

#### 3.1 실용음악 관련 자격증

현재 국내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는 취업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계열의 종사자들에게 자격증

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예술계열 전반적으로 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자격증이 생겨났다. 이는 실용음악도 마찬가지다. 현재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가자격증과 두 번째로 민간자격증이다. 국가자격증은 실기교사 자격증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다.

##### 3.1.1 실기교사 자격증

실기교사 자격증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졸업자(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
2.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2].

다음은 검정 시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자격 기준 중 1~3호는 무시험검정으로 3·4호는 검정으로 자격을 발부한다. 시험검정은 교원 수급 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그러나 현재는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3]. 위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실기교사 자격증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이 불가능 하다. 실용음악과도 과거에는 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대부분의 실용음악과에서 교직과정이 폐지되었고, 가장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교원양성기관"에 의하면 동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혜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용음악과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위 학교 중 혜천대학교는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실용음악과는 폐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학교는 단 2개의 학교뿐이다.

##### 3.1.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문화예술사 1~2급 자격증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요건

1.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15조제 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요건

1. 문화예술관련 대학 졸업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교육과정 이수 요건 :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 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 영역 제외

2.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비전공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육과정 이수 요건 :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 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3.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교육과정 이수 요건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전문대학을 재학 중 발급조건을 충족시키고 졸업을 하면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다. 과거 대학,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던 여러 실용음악과에서도 발급되었다.[4]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현재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1급 자격증의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이 기본 조건이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신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86개의 대학 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14개의 대학이 있다.

### 3.1.3 민간자격증

국내에는 많은 민간자격증이 있으며, 이는 실용음악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실용음악”으로 검색한 결과 실용음악지도사, 실용음악강사, 실용음악기악강사, 실용음악보컬강사, 아동실용음악지도사, 실용음악전문지도사, 방과후실용음악지도사 등 총 31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다[5] 이러한 자격증의 주된 사용처는 방과후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의 강사 지원에 있어 필수 아이টে으로 활용되고 있다.

## 3.2 정교사 자격증

위에 언급된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자격증으로는 불가능하고, 해당 전공자가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교사 1급 자격기준

-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④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7]

위 항목 중 4번 항목을 제외한다면 모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자격요건에 충족된다.

정교사 2급 자격기준

- ①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③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 ④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한 사람
- ⑤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 ⑥ 중등학교 준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⑦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 ⑧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 교사 등(명에 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정교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지만, 대부분 항목이 실용음악 전공자들은 해당이 되기 어려운 방법들이다. 위 방법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2번 항목의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받는 방법이다.

### 3.3 교육대학원

국내 대학원의 시작은 1949년 12월 교육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다. 이후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특수대학원이 시작되었고,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에 속해 있다. 1963년 4월, 서울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창설되었고, 이듬해 1964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도 개설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총

128개의 교육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음악교육 전공은 교육자를 희망하는 음악 전공인들이 진학하는 대학원의 학과이자 전공이며,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초등학교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초등음악교육전공’과 중등학교 이상의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음악교육전공’으로 나뉜다. 실용음악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전공’으로 진학을 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전공에서 정교사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 전공 중 교원의 재교육과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원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취득 불가능한 대학원들이 있어서 진학 전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음악)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가능한 대학원은 총 33개의 음악교육 전공과 1개의 ‘국악교육전공’으로 총 34개가 있다.

#### 3.3.1 자격요건

음악교육전공의 진학 자격요건은 두 가지 전형으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일반전형의 자격요건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합격자 발표 시기에 졸업 예정자”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다.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려는 지원자는 졸업한 대학의 출신 학과와 지원하는 학과가 동일한 전공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추가로 대학원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학부에서 이수한 26~38학점 이상의 전공 및 교직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은 일반전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현재 학교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교원”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기본적인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은 위와 같지만, 대학원마다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자격요건으로는 “현재 교육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라는 자격요건이 있다.

#### 3.3.2 전형방법

음악교육 전공의 전형방법은 공통으로 진행되는 서류심사를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로 나뉘며 일부 대학원에서는 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대학원이 있다. 이처럼 각 대학원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방법을 택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각 대학원에서 결정 후 진행을 한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필기고사와 실기고사를 준비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필기고사의 기출문제 혹은 치르는 과목을 공지해놓은

대학원들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인 과목으로 음악교육론, 시창청음, 서양음악사, 합창지도법, 지휘법, 화성법, 대위법, 국악통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기고사 세부내용을 공지해놓은 대학원들을 확인한 결과 성악, 관현악, 타악, 피아노 변주곡 작곡, 한국음악, 민요, 창 등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확인 결과 필기고사, 실기고사는 클래식과 국악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가 되고 있었으며, 실용음악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 3.3.3 교육과정

음악교육전공에서는 어떠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조사를 하였다. 교육목표 역시 전형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원에 상황에 맞춰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35개의 대학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음악교육을 담당할 음악 교사를 양성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6]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에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운영을 하는지, 35개의 대학원 중 교육과정표에 기본 이수교과목을 표시해놓은 대학원을 조사했다.

Table 1. Curriculum if Kyung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Music Education [9]

과목명	required courses
History of western music	o
Hamony	o
Jango Accompaniment	o
Chorus, ensembl Teaching	o
Research methods of music education	
Music analysis and formalism	o
Theory in music	
Studieson Education History of Music	
Accompaniment with piano	o
Traditional Music Vocal Teaching	o
History of Korean classical music	o
Foundation &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o
Studieson Music Programs in Mass Communication	
Ear-Training and Sight-singing	o
Psychology of Music Education	
History of western music 2	o
Introduction to korean classical music	o
Music pedagogy	o

Music Teaching	o
Traditional Music Teaching	o
Computer Music Education	
History of Music	
Theory in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in Musical Creativity	
Teaching in Music Aesthetics	
Arranging for Choral and Band	
Conducting	
Accompanying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Analysis of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Analysis of High School Music Textbook	
Studies on Materials and Tools in Music Education	
Studies on Popular Music	
Studies on Administration in Music Education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Topics in Research Methods of Music Education	
Arrangement	
Electronic music education	
Musical instruments	
Fusion integrated music education	
Listenin to music	
Practical Music Theory	
Traditional Music practice	
20 <sup>th</sup> Century Music	
Basic music theory	
16 <sup>th</sup> Century Music Studies	
Music curriculum logic and discourse	
Music Education Curriculum	
Music curriculum materials and study	

Table 1에 나와 있는 기본 이수과목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서는 필수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과목들이며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이 외에 교과목들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교과목들이 클래식과 국악에 관련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간혹 대중음악에 관련된 교과목을 1~2개 정도 개설을 하여 운영하는 대학원들도 있었지만, 극소수의 대학원만 그렇고, 많은 대학원이 클래식과 국악에 관련된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기준 미달이면 폐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실용음악 고등학교에서 정교사가 되기 위하여 진학한 학생들은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졸업하여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10].

## 4. Discussion

실용음악 고등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날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경쟁률이 높은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와 음악교육을 보다 빠르게 집중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찾아 왔다. 그러한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 실용음악고등학교이다. 그러나 그 학교들 역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해야 할 정교사가 해당 음악의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은 큰 문제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실용음악 전공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이 될 수 없는 상황과 전공자들이 고등학교 정교사 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인 정교사 2급 자격증의 취득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려된다[11].

정교사 2급 자격 기준에 있는 2번 항목, 교육대학원 졸업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가능한 방법이다. 교육대학원 입학도 쉽지만은 않다. 음악교육전공 전형에 시행되는 시험들의 분야가 클래식과 국악에 관련된 시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부했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음악을 새롭게 연습하고 공부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입학을 해도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클래식과 국악에 중점을 두어서 사실상 실용음악 교육은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여 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12].

## 5. 결론

국내의 대중음악은 해가 지날수록 국내를 넘어서 세계의 음악 시장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K-POP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K-POP 즉 대중음악 분야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또한, 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원이나 개일 레슨 등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받고자 실용음악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상황은 전공자가 아닌 클래식 또는 국악을 전공한 비전공자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용음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비전공자 선생님들에 의한 교육은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에 있어서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

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해도 대학원 교육과정 자체도 클래식과 국악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격증만을 위해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실용음악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꿈을 가지고 진학한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세계로 비약하고 있는 K-POP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려된다.

## References

- [1] <http://www.kpopmuseum.com>
- [2]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14&docId=970481&categoryId=42114>
- [3]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14&docId=970481&categoryId=42114>
- [4] <http://acei.arte.or.kr>
- [5] <https://www.pqi.or.kr/indexMain.do>
- [6] S.W. Jeon, H.Y. Park.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37 - 46,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037>
- [7] H.G. Kim, Y.H. Kim. Design of a Smart Music Learning Device that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using a transparent touch pan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127-132,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27>
- [8] Y.H. Choi, Tianyi Chen, K.H. Lee, The global response to K-POP idol group 's New Hanbok: The case of Black Pink Fash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533-541,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533>
- [9] J.Y. Lee, S.S. Kim, A Study on the Students'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 Focused on the Case of J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2, pp545-554, 2019.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545>
- [10] J.S. Gong. & T.S. Cho, A Study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ul Mus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55-460,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55>

- [11] E.M. Kang, & T.S. Cho, A study on the Improvisation for Jazz Vocal - Praticed and analysis using root position in chord and chord ton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6, pp377-383,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6.377>
- [12] J.S. Kong, & T.S. Cho. Discussion of the Success of Motown records Compan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6 pp.439-445,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6.439>
- [13] K.H. Woo, Kim S.I, A study on User experience Satisfaction Factors of Subscription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331-336,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9.331>
- [14] K.I. Choi, J.I. Lee, Y.A. Yoon,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on the school adaptation and media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485-49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485>
- [15] G. Kim, S.U. Yun, H.T. Kim, A Study on the Integration Model of Continuous Intention to Collect K-POP Records Using S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485-49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441>

조 태 선(Tae-Seon, Cho)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조 지 훈(Ji-Hoon, Jo)

[중신회원]



- 2018년 2월 ~ 2020년 1월 :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행정조교
- 2020년 2월 ~ 2021년 2월 : 청운대학교 행정조교
- 2021년 2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석사 수료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